

영암군, 2022년 청년협의회 정책연수 실시

무안군 청년협의회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구축 협약 성공적인 청년정책 추진 위해 적극적으로 힘 모으기로

영암군은 청년 정책발굴 역량 및 위업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영암 서울농장에서 청년협의회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영암군 청년협의회(대표 하준호)와 무안군 청년협의회(대표 손천수)는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상호 우호 협약을 맺고 공동성장장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양 군은 앞으로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정책연수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3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사항인 청년문화거리의 네이밍 및 프로그램 조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형진 영광군 청년센터장의 '영광군 청년 사회 참여 및 청년센터 운영 사례'강의를 통해 청년협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협의회 연수가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

합하는 청년정책의 멋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으로 민·관이 함께 지역을 더



합하는 청년정책의 멋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으로 민·관이 함께 지역을 더

자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2022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평가 기관상 수상

영광군은 지난 12월 15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22년도 농업분야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 부문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주관으로 2022년 12월 15일부터 16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농촌진흥기관인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2022년도 농업 교육사업 성과 발표와 9개 포상 분야 시상, 2023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핵심 추진 방향 논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광군은 이번 평가에서 2022년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 분야 추진에 있어 예산편성, 교육 목표 수립,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드론·소형건설기계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우수성과 농업인의 성과도와 만족도가 높은 점이 인정받았다.

우수기관 선정 치하로 강종만 군수는 "영광군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농업기계 교육훈련과 안전교육 추진에 열의를 다한 결과이고, 배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열정을 보여준 농업인의 공이 크다"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신청사, 현 군청 부지로 결정

내년 4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무안군은 지난 19일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무안군 신청사를 현 군청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재)

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9개 읍·면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받은 결과 현 군청사 부지 57%, 무안을 황도공원 13%, 무안을 초당대 맞은편 농경지 9%, 오로 신도시 청사부지

16블럭 14%, 기타7%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 25명 중 19명 참석해 현 군청사부지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앞으로 군은 내년 4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청사신축 TF팀 구성, 군 관리계획 및 군 관리계획시행변경, 2024년까지 현상설계공모 및 군민 공청회,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 건립될 청사는 약 800여원의 군비를 투입해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건축물로 신축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로 완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목포시가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이사장 박홍물 목포시장)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의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은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제3회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

현장의 목소리 청취의 장 마련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은 국회의원 김중민, 국회의원 윤장현, 국회의원 양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정부출범, 지속가능발

전기법 시행 후 국정의 전환기적 정책에 맞는 "국민, 현장의 목소리 청취의 장" 마련, ▲국회, 중앙 정부 등 국가의 역할 확대와 민간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통합·조정 거버넌스를 토론하는 자리이다.

정책 포럼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청년들의 요청, 실행력 있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에 대해서 패널들간의 상호간의 토의와 기본법 본격 시행 앞두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등도 함께 토론하였다.

박우량 회장(신안군수)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신안군과 한국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발표하여 세계인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협의회 소속 지방정부들과 함께 노력하여 정치권과 국제사회, 국내 활동 단체,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함평군,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일·가정 양립 '앞장'

함평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 근무환경개선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심사와 서류심사,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래 2017년 연장, 2019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재인증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발굴을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